

알마토

노의 별

하은경 장편소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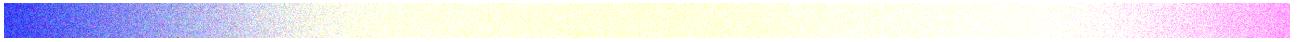


독후화동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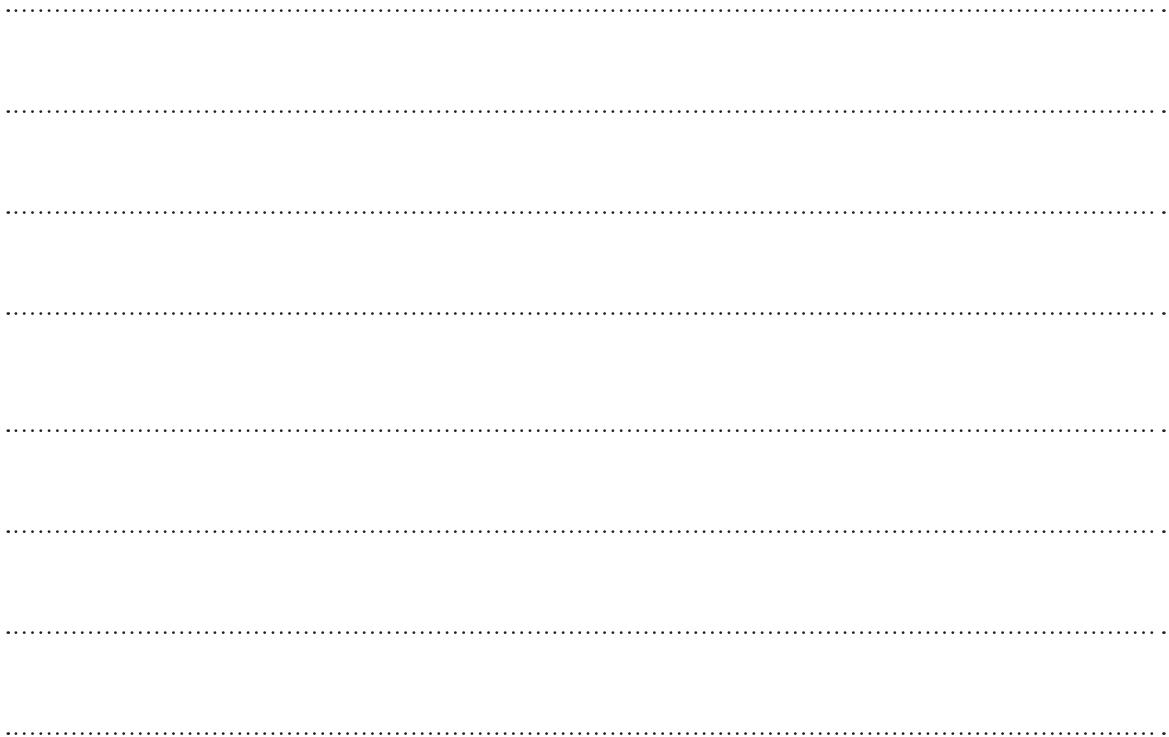
이름
학교 | 학년
지도교사

특별한서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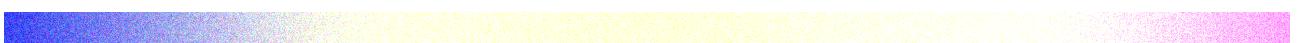




▷ 알마는 아르파라 행성에서 온 외계인 난민입니다. 살고자 지구로 오지만, 외계인 난민을 바라보는 지구인의 냉혹한 시선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지구인의 차별, 편견 어린 태도에 알마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? 만약 나라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?



▷ 지구인은 얼마 같은 외계인 난민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요?



▷ 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시오와 윤설만은 외계인 alma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. 두 사람은 alma를 어떻게 생각했고 alma를 보호하고자 어떤 행동을 했나요?

▷ 주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외계인 alma를 지키겠다는 시오의 마음은 굳센 '용기'로 이어집니다.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계인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시오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.

“지구인들 중에는 너처럼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? 난 그렇게 믿고 싶어.”

“일부 시위대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,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너희를 응원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.”

알마가 심드렁하게 물었다.

“그건 우리를 동정해서겠지? 우린 외계 난민들이잖아.”

“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야.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?”

“공감이라고?”

“그래, 공감. 너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. 왜냐하면 우리 지구인들도 언제 외계 난민이 될지 모르니까.”

▶ 위의 장면을 읽고 내가 생각한 ‘공감’이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. 나 아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한 경험이 있는지 도 함께 고민해보세요.